

[보도자료] 쿠팡, 소상공인 지원 ‘슈퍼서울위크’ 참가

2021. 12. 1.



■ 소상공인 친화적인 이커머스로서 중소상공인 판로확대 등 상생활동 적극 펼칠 것

2021. 12. 1 — 쿠팡은 서울시,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슈퍼서울위크’에 참가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의 우수한 상품들을 식품, 문구, 홈인테리어, 패션의류, 주방용품, 건강식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 걸쳐 만나볼 수 있다. 이번 행사에서 쿠팡은 서울시 소상공인의 우수 상품들을 직매입해 로켓배송으로 선보이고, 지자체와 쿠팡의 1:1 매칭 펀딩으로 광고비도 지원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울 예정이다.

고객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한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풍성한 혜택도 마련했다. 고객들은 행사기간 동안 서울시 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상품에 따라 최대 20%(최대 1만 원 한도)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쿠팡은 ‘슈퍼서울위크’와 함께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매를 돕기 위해 서울지역 소상공인 우수상품을 한 곳에 모은 ‘쏟쏟마켓’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앞으로도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쿠팡은 소상공인 친화적인 이커머스로서 중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투자에도 집중하고 있다. 쿠팡은 공정위와 4000억 원에 달하는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인과 농수축산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정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과 농수축산인들의 디지털 판로 개척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슈퍼서울위크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들의 판로를 제공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할인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우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